

전남

순천정원박람회 출발부터 벅격

시의회 예산 71억 삭감... 토지보상비 절반도 확보 못해

순천시의회가 순천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특히 노관규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추진 예산을 가장 많이 감축해 사업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박람회장 편입토지보상비 50억원을 삭감해 157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전체 토지보상비 350억원 가운데 45%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람회조직위원회 창립과 관련한 조직위 총회 개최, 조직위 기본재산 출연, 서울사무소 운영임차료·홍보관 설치 등은 시기 등을 이유로 5억6천8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홍보비는 과다하게 중복 편성됐다는 이유로 17억원 중 9억원을 삭감했다.

시에 목적을 명기하지 않은 것은 정원박람회 자원마련을 위한 편성으로 우려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순천시의회 허갑숙 예결위 간사는 "정원박람회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전신성 행사로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시의 실정에 맞게 개회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해당 상임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집행부는 삭감된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의회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성 5일장 "없는데 없어요" 보성지역 주민들이 최근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한 보성 5일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보성군 보성은 5일시장 상인연합회(대표 박종남)는 지난 12일 5일시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객한미당 행사'를 개최했다. <보성군 제공>

나주경찰 농민들에 '사랑의 손길'

전직원 쌀 1포씩 구매 연말 불우이웃에 전달

나주경찰서(서장 김원국)가 쌀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을 위해 전 직원에 쌀 1포씩을 구매, 논길을 걷고 있다. 나주경찰은 과잉생산 등 재고누적으로 쌀값이 떨어져 판로마저 확보하기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지난 14일 전체 직원 251명이 10kg 쌀 1포씩을 구매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농민들의 아 직투쟁을 진압하는 등 대립관계에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호평했다. 주민 K모(52·나주시 노안면)씨는 "매번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대립해 왔었는데, 뜻밖에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쌀을 대량 구매해준 경찰 측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개원 100년 장흥법원 최초 판결은?

역사 담은 '세월을 보듬고' 발간

개원 100년을 맞은 광주지법 장흥지원·지청이 그동안의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매년 시위현장에서 경찰과 대립해 왔었는데, 뜻밖에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쌀을 대량 구매해준 경찰 측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때려 사람을 다치게 한 '투구상인(鬪毆傷人)' 사건. 재판부는 장흥군 부동면(현 장흥읍)의 포목상 박모씨가 그해 10월 5일 군내면 시장다리 인근에 술에 취한 채 걷다가 김모씨의 얼굴을 때려 눈썹 사이를 다치게 했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해 태(否) 30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광양 매실·나주 대파·장흥 함초·무안 국수·장성 녹차

유기농산물 국제 인증 수출 탄력

전남도는 올해 도내에서 생산된 5품목의 유기농산물이 국제규격 인증을 받아 일본·미국·유럽 수출길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국제규격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은 광양 매실(다량매출영농조합), 나주 냉동대파(살품산업), 장흥 함초(HC바이오테크), 무안 국수·리면(범우), 장성 녹차(한국제다) 등이다.

함초, 무안 국수·리면은 일본농림규격(JAS) 인증을 받았으며 장성 녹차는 미국 유기농 규정(USDA) 인증을 획득했다. 일본농림규격과 미국 유기농규정은 국제규격에 적합하고 안전한 농자재를 사용해 재배·생산·사후관리를 해야하는 등의 식품관리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

이런 인증으로 내년에 녹차 10만달러, 냉동대파 18만달러, 매실 12만달러, 국수·리면 5만달러, 함초 10만달러 등 총 55만달러 상당을 수출하게 된다. 윤인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앞으로도 도내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제규격 인증 지원과 컨설팅을 더욱 확대해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농식품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 201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

郡-해양도시가스 업무협약

해양도시가스는 16일 장성군청 상황실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1년까지 군내 5개 읍·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해양도시가스는 이날 협약을 통해 장성군 내 장성읍·황룡면·동화면·삼계면·삼서면 등 5개 읍·면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며 장성군은 이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공동주택·기업체·병원 등 3천444개소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해양도시가스는 또 2012년부터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연간 7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비롯, 지역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곡성 옥과농협, 주부대학원 수료식 곡성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최근 문화복지센터에서 주부대학원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식에서는 양옥순씨 등 75명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맞는 여성리더로서 갖춰야 할 기본교육과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증서를 받았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영암 삼호로터리에 랜드마크 조형물

영암군 삼호읍 로터리에 랜드마크 역할을 할 조형물이 세워졌다. 영암군은 지난 11일 삼호읍 용양리 로터리 광장에서 김일태 영암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터리 조형물 '미래로의 출발' 준공식을 가졌다.

3억5천만원이 소요됐다. 조형물은 영암호, 영산호, 금호호 등 삼호(三湖)와 미래를 향해 대양으로 진출하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영암의 기상을 상징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대불 국가산단과 F1대회 개최지로서 군민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1월 전국 제안공모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남성성기능강화제 advertisement with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대한민국 최초! 무료 음성커뮤니티, 탄생 advertisement for a voice community.

(서울) 퍼스트부동산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해령법률경매 advertisement for legal services and real estate auctions.